

한글 로마자 표기에 대한 국제 기관의 규정과 표기의 실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omanization Rules and Practices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s for  
Korean language materials

오 경 목\*

<목차>

I 서론

II 기관별 규정 및 사례 연구

1. 미국의회도서관과 미국도서관협회
2. UNGEGN(UN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
3. PCGN(Permanent Committee on Geographical Names)

III 기준 표기로서의 매쿰-라이샤워 표기법의 적용

1. 본표제사항 2. 대등표제
3. 저작권 관련사항 4. 판사항
5. 주제명 채택 6. 띄어쓰기에 따른 표기의 변화

IV. 결론

초 록

인터넷 환경에서 정보검색의 기본적인 사안은 선택된 언어의 문자와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다. 매쿰-라이샤워시스템은 학술적 및 비학술적 적용을 위한 국제표준으로서, 목록 및 검색 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자료 이용자들에게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현재 ISO, UNGEGN, LC, ALA, BL, 영국지명위원회와 유럽, 호주, 캐나다 등의 유관기관들은 모두 매쿰-라이샤워시스템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도서관 일각에서 진행하려고 시도하는 2000년식 새한글로마자시스템으로의 표기방식 전환은 도서관 목록과 온라인 DB 등에서 많은 혼란을 일으키게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기관에서의 이 분야에 대한 노력을 소개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세한 규정을 통하여 로마자시스템을 심층적으로 분석, 소개하여 향후 이 문제를 둘러싼 한국 도서관계가 현명한 판단과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fundamental issue of information retrieval in the Internet-based society is closely interrelated with the characteristics of language selected. The McCune-Reischauer Romanization system is not only considered as the international standard for romanizing Korean language, it is also familiar to the majority of the Korean material users internationally. McCune-Reischauer system is adopted by the ISO, UNGEGN, ALA, LC, British PCGN, BL, and the relevant agencies in Europe, Canada and Australia etc. Encouraging for switching to the new Romanization system(2000) would result in complications among the library's catalogs and online databases, causing confusion for both staffs and readers. This paper analysed that

\* 숙명여자대학교 문과대학 문헌정보학 전공. kmoh@sookmyung.ac.kr

the international efforts and rules for Romanizing Korean language materials and recommended direction for bibliographical issues.

Key words: Information retrieval, Bibliographic control, McCune-Reischauer system, New Romanization system, Access point

키워드: 정보검색, 서지통정, 매크-라이샤워시스템, 새로마자시스템, 접근점

## I 서론

현재 국내외 학계에서는 2000년 문화관광부에 의해 공표된 국내용 성격의 로마자 표기법을 전세계적으로 보급하려는 것은 비현실적인 만큼, 로마자 표기법을 수정하여 갈수록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영어의 발음 형태를 올바르게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도 로마자의 올바른 표기 방법이 향후 목록 정보 통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 늦게나마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오경목 2005, Kim Young-Ki 2007). 본 논문의 의의 중 하나는 올바른 정보의 접근점(access point)을 사회적으로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보 및 도서관 업계가 자칫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고, 올바른 전거통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는 데에 있다. 인터넷 환경에서 키워드 검색시 정확한 용어의 사용은 일반이용자 검색 행태 관행으로 비추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도서관 내 목록 뿐만 아니라 Google등 대형 포털의 검색 서비스가 점차 고급화되고, 도서관과 관계를 밀접하게 갖게 되면서, 검색 용어의 선정과 표기 방식은 더욱 중요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Miller and Pellen 2005).

오늘날 논란이 되고 있는 2000년에 국립국어원이 공표한 <새 한글로마자 표기법>에 대하여 개정 당시 여섯 명의 학자들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았던 유만근교수는 2005년 10월 한글날 특집으로 방영된 KBS 특집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 우리들을 다시금 놀라게 하였다. 다음 내용은 전체 인터뷰 내용을 재정리한 것이다(김민철 2005).

‘..... 당시 표기법 개정 과정에 아쉬움이 많았다.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구성된 위원회였기 때문에 위원회를 마냥 길게 끌고 갈 수는 없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얼른 해결이 안 되면 다수결로 빨리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시간에 쫓기는 점도 있고 해서, (갈수록 인터넷 보급과 함께 보편화 되고 있는 영어 사용의 현실을 외면하면서) 국제성이 모자란 퇴보할 수 밖에 없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

이른바 ‘월드컵 표기법’에 대한 솔직한 고백인 것이다. 외국인이 한글을 사용하는데 로마자 표기법이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대하여 유교수는 “새 표기법이 한국사람끼리만 통하게 해 놔으니깐 배우고 적용하기가 힘든 문제”라고 지적한다. 인터넷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무역은 물론 학문, 과학기술 등 대부분 국제교류에서 영어표기는 이제 지구촌의 보편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되었기에 영어사대주의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는 더 이

상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근시안적 민족주의적 결정은 의심할 바 없이 한반도 안팎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상에서 보다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오히려 잘못된 표기법이 한글의 세계화를 가로 막고, 정보가 생활 근간이 된 사회에서 정보검색에 오히려 지장을 주는게 아닌지를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혼란의 모습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올바른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를 위하여 한국학 용어집을 편집한 서울대 송기중 교수는 다음과 같은 우려를 하였다. 우리나라가 1900년 근대화된 이후 부터, 2000년 정부가 새로마자 표기법을 소개하기까지 세계에 알려진 우리 문화용어들의 로마자 표기는 대개 맥쿤-라이샤워 표기법에 의거한 것이며, 우리 정부가 1984년부터 2000년 6월까지 16년간 공식 채택하였던 표기법도 이와 대동소이한데, 일단 정착되면 바꾸기 어려운 문자 표기의 속성상 이 표기법에 따라 표기된 한국관련 용어들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어쩌면 영원히, 세계적으로 통용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송기중 2001) .

우리말을 로마자로 표기해서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Pusan' 이나 'Busan'이 모두 '부산'으로, 'Kaesung' 이나 'Gaesung'이 '개성'으로 인식되지만, 우리말 로마자 표기가 필요한 외국인에게는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인식되며, 'Poston'과 'Boston', 'Kennedy'와 'Gennedy'가 전혀 다른 이름으로 인지되는 것과 같이 우리말에 익숙치 않은 외국인들에게는 Pusan과 Busan, Gennedy와 Kennedy가 같은 지명/인명으로 인식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정 업무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도서관계나 정보서비스 업계에서는 표기법이 바뀔 경우, 전환에 따른 혼란으로 인하여,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 명확관하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한글의 로마자 표기가 점차 일상생활에서도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따라 문헌정보학계에서도 올바른 정보조직과 정보검색을 위한 방법제시를 위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형편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정 업무상 전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와 미국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의 한글로마자규정에 대한 구체적 적용 기준을 살펴보고, 한글로마자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글로마자표기와 관련한 국제기구로서 UN 산하의 UNGEGN과 영연방권(the British Common Wealth)의 PCGN의 활동 내용과 표기원칙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들의 활동과 표기원칙은 앞으로 국제기관에서 한글의 표기 원칙을 정하는데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우리 도서관계도 당사자로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 기관이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맥쿤-라이샤워 표기법이 도서관 업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심층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도서관에서의 표기법 전환에 대한 제반 현안과 문제점들을 연구 결과로 제시하였다.

## II 국제기관별 적용 규정 사례

### 1. 미국의회도서관(LC)과 미국도서관협회(ALA)

세계 최대 정보센터로서, 서지 통정 및 정보서비스 업무의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미

의회 도서관은 G.M. McCune과 E.O Reischauer가 저술한 <Romanization of the Korean language: based upon its phonetic structure> 에 의해 만들어진 McCune-Reischauer 시스템에 의해 서지작업을 하고 있다. 매쿰-라이샤워 시스템은 1939년에 최초로 고안되었을 때, 저자들이 밝혔듯이 음성적이거나 기술적인 언어학적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만든 것이 아니고, 학술적이거나 일반적으로 비학술적 사용이 필요한 곳에서 이용하려고 고안하였다. 발음했을 때, 유사하게 들리는 음을 나타내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방법을 제시하는 의도를 가지고 시스템을 고안한 것이다.(McCune and Reischauer 1939). 한글이나 영어가 모두 근본적으로 한국어 발음을 옮겨 적는데 있어서, 전적으로 정확하거나 편리하지 않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보다 향상된 방법을 찾는 한, 어느 방식이 더 좋으나 하는 논쟁은 아마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Holstein 1999).

LC와 ALA에서 1997년 인증한 한글의 로마자화 변환을 위한 원칙은 매쿰-라이샤워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전세계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Library of Congress 1997).

- 1) 로마자규정이 단어의 발음과 모순될 때, 발음대로 표기하도록 하고, 묵음의 마지막 음절은 로마자하지 않는다. (예: 값 - kap, 없다 - öpta )
- 2) 쓰기형식에 상관없이, 강조된 중간 자음은 발음 나는 대로 적는다. (한자 - hancha, 평가 - p'yöngka, 문법 - munpöp)
- 3) 종성의 이중자음은 발음나는대로 적는다. (흙 - hük, 삼 - sam, 닭 - tak)
- 4) 초성 ㄴ 과 ㄹ의 경우에는, 매쿰-라이샤워규정을 따르되 다음의 예외를 인정한다(로동 - nodong, 력사 - yöksa). 성씨의 '이(李 - 이 혹은 리)'는 항상 'Yi' 로 표기한다.
- 5) 하이픈의 사용: 이름의 두번째 음절에 사용한다(송시열 Song, Si-Yöl). 관할구역으로서 속명(屬名)에서 사용한다(강원도 Kangwön-do, 대구시 Taegu-si, 가회동 Kahöe-dong). 단, 북도는 pukdo로 별도 표기한다. 기수(基數)를 적을 때도 사용한다(이천 칠 ichön-ch'il). 또한 연도 표기 시 10주년은 10-chu'nyön, 1990년은 1999-yön으로, 서양어원의 단어가 한글(혹은 한자)에 기원한 단어와 결합되었을 때 사용한다(예: esei-chip 에세이집)
- 6) 외래어의 표기는 해당어가 발음나는대로가 아니고, 한글의 발음나는대로 적는다.(베트남 Pet'ünam, 제로 chero, 디자인 dijain)
- 7) 개인 이름: 성과 명은 분리하여 사용하되 명에서 두 글자의 경우 글자 사이에 하이픈을 사용하고 앞 글자의 첫 문자는 대문자로 적는다.(Ch'oe Ch'i-wön, Namgung Ok, Tokgo Yöng-je). 왕(왕가)의 이름은 하이픈 없이 적는다. (광개토왕 Kwanggaet'o Wang, 장희빈 Chang Hüibin). 단 가명이나 시호 등은 명을 하나의 단위로 한다. (김 샷갓 Kim Sakkat, 충무공 Ch'ungmugong).

8) 단체이름: 가능하면 2성분 화합물같이 단체이름을 처리한다.(한국사학회 Han'guksa Hakhoe, 국어국문학과 Kugŏ Kungmun Hakkwa, 라성한인장로교회 Nasŏng Hanin Changno Kyohoe).

9) 지형형태를 나타내는 한글자 속명(屬名)은 고유지명의 한 부분으로써 함께 사용한다.(한라산 Hallasan, 낙동강 Naktonggang, 독립문 Tongnimmun). 다른 말과 결합되어 두개의 요소로 속명이 만들어지면 태백山脈은 Taebaek sanmaek, 원주郡誌는 Wŏnju Kunji, 동아일보사는 Tong'a Ilbosa 로 표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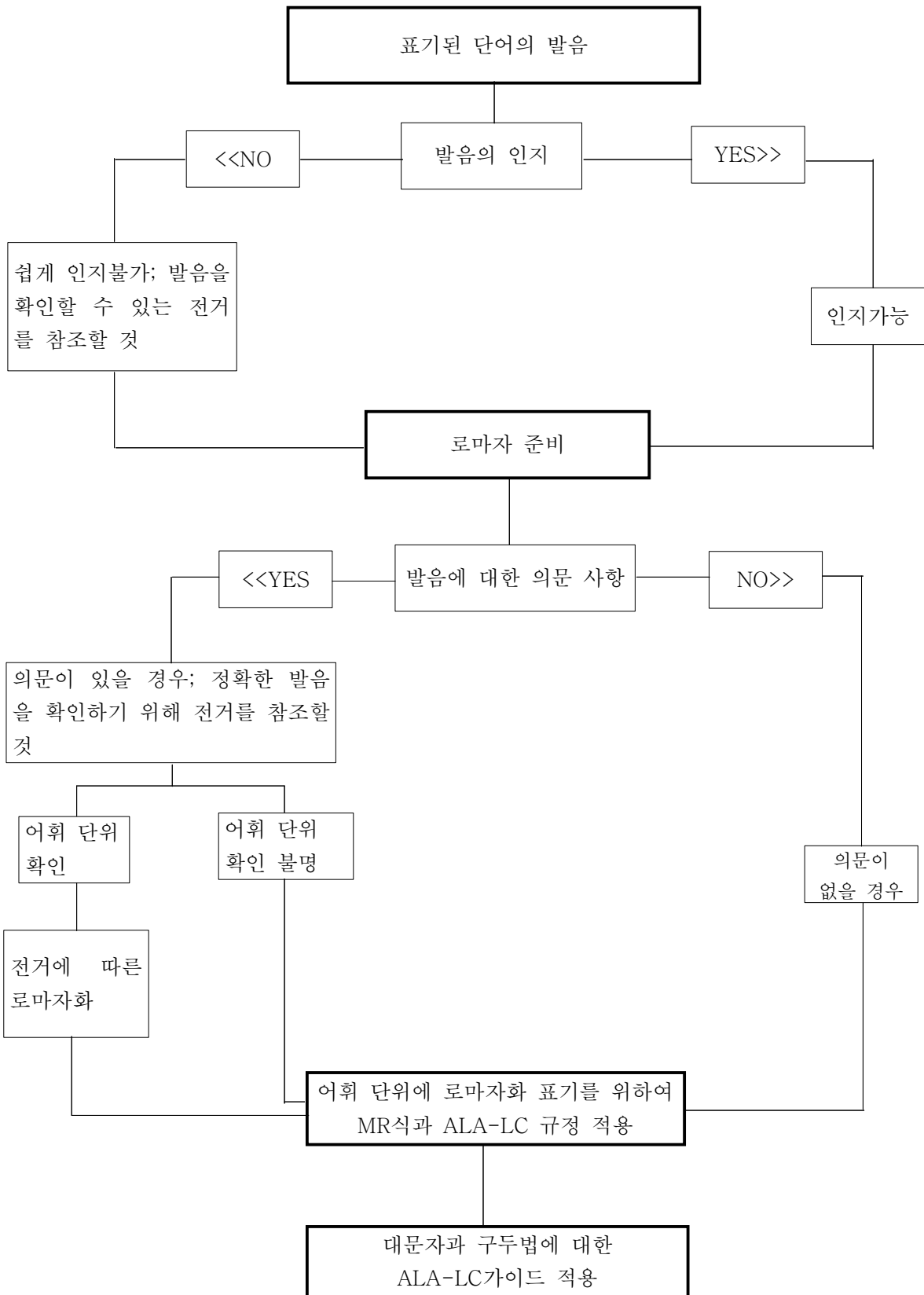
10) 축약된 단어는 이를 한단어로 사용한다. 진경련 Chon'gyŏngnyŏn. 축약된 통합어는 통합된 요소를 하이픈으로 연결할 수 있다. (최신 불한 사전 Ch'oesin Pul-Han sajŏn, 신역신구약 전서 Sinyŏk Sin-Kuyak chŏnsŏ, 중단편 소설 Chung-tanpyŏn sosŏl)

11) 숫자사용의 경우, 아라비아 숫자에 서수를 나타내는 문자(제...)는 그다음 숫자와 결합하여 표기한다.(제1차 che-1 ch'a, 제일차 cheil ch'a, 제3세계 che-3 segye, 제삼세계 chesam segye)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로마자화의 작업 과정은 [그림1]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한글로마자 표기는 발음나는 대로 표기하는 원칙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발음을 모를 경우 발음사전 등 전거를 참조하여 로마자화원칙을 적용하여 표기하도록 한다. 서명, 저자 등에서 나타난 한글표기는 어휘의 단어에 따라 발음이나 띄어쓰기 규정을 적용하여 표기하고 대문자법이나 구두법도 LC/ALA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표기하도록 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림 1] 한글의 로마자화 과정 설명도



## 2. UN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UNGEGN)

지명은 인명과 같이 주제명표목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확한 지명을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이고 사회 경제적 발전과 국가의 기간망 구조와 국토보존 업무를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UN은 UNGEGN(UNGEGN working group on Romanization systems)을 설립하여 정확한 지명을 전세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사용하는 것을 증진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지명(place name)은 문화, 유산, 환경을 개별화하고 이를 반영하며 정확한 지명의 올바른 사용은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으로 다음과 같이 다양한 커뮤니티의 업무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한다(UNGEGN 2007).

- 무역과 상업 등 각종 비즈니스
- 국가통계와 센서스 업무
- 재산권과 토지대장 관리
- 도시 및 지역 개발 업무
- 환경관리: 지속적 개발과 보존
- 자연 재난 구제, 응급 지원과 긴급 구조
- 각종 지도 제작 업무
- 내비게이션 장치 및 서비스 사용
- 관광 사업
- 우편물 서비스, 각종 뉴스 서비스 등
- 기타 모든 커뮤니케이션 활동

이러한 국제적인 지명표기의 중요성 때문에 UNGEGN에서는 지속적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 이름 표준 메카니즘 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가지명사전(색인)이 없는 국가에 대한 원조
- 단일 로마자시스템 개발을 지원
- 국가적으로 인증된 이름의 사용 및 유포를 유도
- 훈련 도구와 커뮤니케이션을 증진 및 개발

이 기관의 보고서(Report on the current status of UN Romanisation systems for Geographical Names, 2003)에 의하면 한국어를 위한 로마자 시스템은 UNGEGN(지명 표기에 대한 UN의 전문가 그룹)의 수차례 회의에 제시된 적이 있긴 하지만, UN Conference에서 승인된 것은 아직 없다. 회의에서 북한(DPRK)과 남한(ROK)이 단일화된 국제시스템 제출을 촉구받은 바 있다. 북한에서는 1992년 국가시스템을 정하고, 1994년 7차회의에서

UNGEGN에 이를 제출하였고, 2002년에는 수정된 안을 제출한 바 있다. 남한에서는 2000년 6월에 1984년 이래 사용되어오던 시스템을 폐기하고, 새로운 안을 문화관광부안으로 채택한바 있다. 이러한 남북의 국가시스템과 별개로 가장 널리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시스템은 매클-라이샤워시스템으로서 이는 USBGN(US Board on Geographic Names)과 UK PCGN(Permanent Committee on Geographical names)에서 이미 규정으로 사용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의 ISO 전문가들이 만나서 부분적으로 동의한 번자시스템은 예비적으로 ISO TR 11941: 1996 이지만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표준화하지는 못하였다. 이때 제안된 안은 국제표준기구(ISO)의 요청에 따라 도출된 것으로 특히 모음 표기에 있어서는 [표 2]와 같이 남북한이 상당한 합의점에 이르기기도 하였었다. [표1]과 같이 자음 표기 방식에서 한 가지 이상(ㄱ의 경우, k/g) 문자값을 갖는 것은 해당 문자값이 음절의 처음이나 나중에 위치하는 것에 따른 표기의 다양성을 나타낸다. ‘국민’의 경우 Kungmin으로 ‘ㄱ’이 k로, ‘한국’의 경우 Han'guk의 ‘ㄱ’이 g로 각각 다르게 표기된다.

[표 1] 로마자시스템 비교표 : 자음

	ISO 남북합의안	북한안	남한안	MR 방식
ㄱ	k/g	k	g, k	k
ㅋ	kh/k	kh	k	k'
ㄲ	kk/gg	kk	kk	kk
ㄷ	t/d	t	d,t	t
ㅌ	th/t	th	t	t'
ㄸ	tt/dd	tt	tt	tt
ㅍ	p/b	p	b, p	p
ㅑ	ph/p	ph	p	p'
ㅑ	pp/bb	pp	pp	pp
ㅓ	c/j	j	j	ch
ㅕ	ch/c	ch	ch	ch'
ㅖ	cc/jj	jj	jj	tch
ㅗ	s	s	s	s
ㅛ	ss	ss	ss	ss
ㅎ	h	h	h	h
ㅇ	', -, ng	-, ng	-, ng	-, ng
ㄴ	n	n	n	n
ㄷ	l	r	r,l	r, n, l
ㅁ	m	m	m	m

[표 2] 로마자 시스템 비교표 : 모음

	ISO 남북합의안	북한안	남한안	MR 방식
ㅏ	a	a	a	a
ㅑ	eo	ǒ	eo	ǒ
ㅓ	o	o	o	o
ㅕ	u	u	u	u
ㅗ	eu	ǔ	eu	ǔ
ㅛ	i	i	i	i
ㅜ	ae	ae	ae	ae
ㅡ	e	e	e	e
ㅝ	oe	oe	oe	oe
ㅟ	ya	ya	ya	ya
ㅠ	yeo	yǒ	yeo	yǒ
ㅡ	yo	yo	yo	yo
ㅢ	yu	yu	yu	yu
ㅤ	yae	yae	yae	yae
ㅥ	ye	ye	ye	ye
ㅦ	wa	wa	wa	wa
ㅧ	weo	wǒ	wo	wǒ
ㅨ	wi	wi	wi	wi
ㅩ	wae	wae	wae	wae
ㅪ	we	we	we	we
ㅫ	yi	ǚi	ui	ǚi

### 3. Permanent Committee on Geographical Names: PCGN

영연방(the British Common Wealth) 국가의 주장역할을 하며, 이들 국가들에게 문화적으로 여전히 영향력을 갖고 있는 영국에서도 정확한 지명의 표기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인식, USBGN, UNGEGN 등과 같은 지명통제기구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정확한 지명표기는 특히 토지재산관리, 국토방위, 외교 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 조직은 어느 정부 부서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된 기구로서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위원회는 왕립지리협회 사무실 공간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사무장과 지명연구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보낸 대표들로 구성된다.

- 국영방송사인 BBC 모니터링 부서
- 첩보정보국, ICG(전 지리공간 방첩부대)
- 국방첩보참모부, DIS
- 외교 및 영연방 부서

- 정부커뮤니케이션본부
- 수로측량사무소
- 육지측량부
- 왕립지리연구소
- 영국지리학자협회
- 왕립스코틀랜드 지리협회

현재 남한과 북한에 동시에 정식대사관을 개설하고 있는 영국정부의 경우, PCGN의 원칙에 따라 한국어 로마자 표기를 위해 매킨-라이샤워시스템을 사용한다. 남한과 북한이 각각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만, PCGN의 방침은 한가지로서, 불변의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어에 대하여 단일 시스템을 적용하고자 하는 UN의 정책을 따른 것이다. 이는 남북을 막론하고 한국 이름 처리에 대하여 일관성있는 조치로서 지도와 지명사전 그리고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는데 이용된다. 매킨-라이샤워식 표기는 지명뿐만 아니라, 영국도서관(British Library)과 대학도서관 등에서 한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데 두루 쓰이고 있다. PCGN의 시각에서 보는 남북한 간의 로마자시스템은 다음과 같다(PCGN 2003).

북한 당국에 의해 사용된 로마자는 1992년, 2002년 UNCSGN(6, 8차)에 제출된 바 있다. 1992년 이후 지명과 개인명을 로마자로 변환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이는 전체적으로 MR과 유사성이 있으나 자음 처리시, kh, th, ph, ch를 k', t', p', ch'로 각각 대신하게 된다. 또한 남한 정부의 로마자화 규정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는 개인 이름을 로마자화하는 방식은 아직 규정적이진 않다. 따라서 이름의 표기는 보다 일관성이 없게 된다. 시스템을 적용하기보다 이름을 만들어내는 실정이다. 특히 성씨(surname) 이씨의 경우, I로 표기하기보다 Yi, Ri, Lee, Li로 표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그 어느 것도 형식에 맞춘 로마자로 전환된 것이라기보다 개인적으로 적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국정부는 서서히 개방되며 국제화되고 있는 다음의 북한 지역에 대해서도 확고하고 혼동이 없는 단일 표기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즉 Kangwŏn-do 강원도, Kūmgangsan special tourism zone 금강산 자유여행지역, Kaesŏng special industrial zone 개성 공단, Sinūiju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신의주 특별행정구역, Najin Sŏnbong special economic zone 나진선봉경제특구 등에서 확고한 표기 원칙을 지켜서 각종 사업과 접근에 있어서 혼란이나 지연을 유발치 않고 있다.

### III. 매킨-라이샤워 표기법의 적용 사례

전세계적으로 목록작업의 지침과 참고가 되는 AACR2(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2)의 일반 원칙에 따라, 한국어 자료들은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다음에 정리된 내용은 AACR2에 적용된 일반규정 중 한국어 자료에 적용되는 요소들에 대한 기술원칙을 구체적인 예와 함께 일부 소개한 것이다(Tsiang 2004). AACR2의 일반 원칙과 같이 한국학 자료의 목록작업이 이루어 질 때에도 서명사항, 판사항, 발행 및 배포사항, 총서사항의

기술(description)은 그 자료에 쓰인 언어와 문자 그대로 표기하도록 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매칸-라이샤워식 표기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245 10 \$a Chŏnja sŏmyŏng, intŏnet pŏp : anjŏnhan chŏnja sanggŏrae

245 10 \$a 전자서명, 인터넷법 : \$b 안전한 전자상거래

250 \$a Che-2 chŭngpop'an

250 \$a 제2 증보판

260 \$a Sŏul T'ŭkpyŏlsi : \$b Han'guk Minjok Misul Yŏn'guso

260 \$a 서울특별시 : \$b 한국민족미술연구소

440 #0 \$a Hallim Kwahagwŏn ch'ongsŏ

440 #0 \$a 한림과학원총서

또한, 저작물 자체에 잘못 기입된 부분이나 식자의 잘못 등으로 인한 부정확한 내용은, 있는 그대로 기재하고 그 다음에 그 바른 내용을 'i.e.'를 동반하여 각 괄호([ ])로 묶어 부기한다.

245 .../\$c Ch'oe Ik-hwan [i.e. Ch'oe Ik-han] chŏ

.../\$c 최익환[i.e. 崔益翰]저

저작의 확인을 위한 핵심 키워드로서 많이 사용되는 표제사항과 저작자 관련사항, 판사항, 주제명 등 각 사항에 따른 표기법의 적용은 다음과 같다.

### 1) 본표제사항

본표제는 (표제면과 판권기를 그 우선순위로 하는) 으뜸 정보원(chief source of information)에 나타난 형태 그대로 즉, 순서, 철자 등이 적힌 그대로 기재해준다.

245 10 \$a Han'guk ŭi munhak pipyŏng, 1945-1985

245 10 \$a 한국의 문학비평, 1945-1985

245 10 \$a 1995-yon Pukkyŏng Nampuk ssal hoedam

245 10 \$a 1995년 북경 남북 쌀회담

245 10 \$a Salgo sip'ŭn chip kŏtko sip'ŭn kŏri: \$b chut'aek, tosi, hwan'gyŏng e taehan k'ŏllŏm: Yi Kŏn-yŏng esei-chip

245 10 \$a 살고 싶은 집 견고 싶은 거리 : \$b 주택 도시 환경에 대한 컬럼 : 이견영 에세이집

별서명은 본서명의 일부분으로 간주하여 ‘일명’ 등 상등어를 동반하여 기재하는데, ‘일명’ 전 후에는 쉼표를 사용하고, 별서명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적는다.

245 00 \$a Choein ūn ōpta, ilmyōng, choguk ūi milsa

245 00 \$a 죄인은 없다, 일명, 조국의 밀사

246 3# \$a Choguk ūi milsa

246 3# \$a 조국의 밀사

본 표제에 저작사항이나 발행, 배포처 등의 내용이 본 표제에 포함되었을 경우, 이를 본 표제의 한 부분으로 보고 함께 기술한다.

245 10 \$a Kim Tong-ni chōnjip

245 10 \$a 김동리전집

245 10 \$a Asan Chōng Chu-yōng yōnsōlmunjip

245 10 \$a 아산 정주영 연설문집

245 10 \$a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서목록

245 10 \$a Yōnse Taehakkyo Chung'ang Tosōgwan Kosō mong'nok

본 표제가 2,3 부분으로 나뉘어져 표시되고, 문법적으로 상호연관이 없을 때, 주 저작의 표제를 우선케하고, 독립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부가적인 부분은 본표제 뒤에 부가적 표제가 위치하도록 한다.

245 10 \$a Chosōn kujōn munhak kaeyo. \$p Kodaе chungsep'yōn

245 10 \$a 조선 구전 문학 개요. \$p 고대중세편

245 00 \$a Han'guk munhak ūi ihae. \$p Kojōnp'yōn

245 00 \$a 한국 문학의 이해. \$p 고전편

## 2) 대등표제

도서의 본문 속에 대등 표제와 일치하는 언어로 쓰인 언어(한글)로 표제를 기술하고, 영문 대등 표제는 그 다음에 기술한다.

245 10 \$a Yōng-han Han-Yōng chōngbo ch'ōri yōngō sajōn = \$b New computer concise English-Korean Korean-English dictionary

245 10 \$a 영한한영정보처리용어사전 = \$b New computer concise English-Korean Korean-English dictionary

246 31 \$a New computer concise English-Korean Korean-English dictionary

본표제 기술원칙에 제시된 대로 으뜸정보원에 나타난 부서명 또는 잡제를 모두 기술한다.

245 10 \$a Na nūn ōpta : ōpta nūn kōt ūi yōngwōnhan arūmdaum : Hwang  
Chung-sang sosōlchip  
245 10 \$a 나는 없다 : \$b 없다는 것의 영원한 아름다움 : 황중상 소설집

### 3) 저작권 관련 사항

저작권 관련 사항은 표제면에 쓰여진 글자와 어순 그대로 기재한다. 만일 이 사항이 그 저작의 으뜸정보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취하면, 각 괄호로 묶어([ ]) 기재한다.

245 00 \$a Yin and Yang / \$c[kihoek, p'yōnjip An Sang-su ; p'yōnjip Kim  
Yōng-ju, Pak Yong-suk ; Yōngmun p'yōnjip Keri Rekt'ō]  
245 00 \$a Yin and yang / \$c[기획편집 안상수 ; 편집 김영주, 박용숙; 영문편집 게  
리렉터].

대등표제를 처리할 때, 저작사항에 대한 기술이 필요할 경우, 본표제, 대등표제, 또는 이와 관련된 다른 표제 다음에 저작사항을 각각 기술한다.

245 10 \$a Myōngsan / \$c Kim Kun-wōn = The noted mountain / Kim Geun  
Wōn.  
245 10 \$a 명산 / \$c 김근원 = The noted mountain / Kim Geun Won.

저작자 단체가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저작자 내용을 기술한다.

245 00 \$a Kyech'uk ilgi. \$b Inhyōn Wanghu chōn / \$c chakka misang ; Chōn  
Kyu-t'ae chuhae  
245 00 \$a 계축일기. \$b 인현왕후전 / \$c 작가미상; 전규태 주해

또한 어떤 저작이 종합서명은 없지만, 어느 한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하면 이 저작을 표제 표목으로 삼고, 나머지는 내용주기에 입력한다.

245 10 \$a Kūrimja chōmmok / \$c [chōja, Cho Chōng-nae].  
245 10 \$a 그림자접목 / \$c[저자, 조정래]  
505 0# \$a Kūrimja chōmmok -- Hoesaek ūi ttang -- Pakt'o ūi hon --  
Hündüllinūn kohyang -- Meari meari -- Sigan ūi kūnūl -- Kil.  
505 00 \$a 그림자접목 -- 회색의 땅 -- 박토의 혼 -- 흔들리는 고향 --메아리메아  
리 --시간의 그늘 -- 길.

### 4) 판사항

판사항은 그 저작에 나타난대로 판 사항을 기술한다.

250 \$a Ch'op'an                      250 \$a Che 1-p'an  
250 \$a 초판                            250 \$a 제 1판

원본을 다시 만들어 배포한 자료는, 나중에 출간한 곳의 내용을 기재하고, 원본의 출간 내용은 주기에서 처리한다.

260 \$a Söul Tükpyölsi : \$b T'ap Ch'ulp'ansa, \$c 1990  
260 \$a 서울특별시 : \$b 탑출판사, \$c 1990.  
500 \$a Originally published: [P'yöngyang] : Kwahak Paekkwa Sajön Ch'ulp'ansa, 1987.

국가, 도 등의 이름이 정보원에서 나타나서 이것이 지명을 분별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라고 간주되면 장소 이름 다음에 이를 기재한다.

260 \$a [Söul] Chongno-gu  
260 \$a 종로구 [서울]

## 5) 주제명 채택

미국의회도서관에서 표기하는 한국 관련 주제명은 미국 이외에도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학술/연구기관에서 통제어휘 도구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미국의회도서관 주제명표목(LCSH, LC Subject Heading)은 목록시 주제목록의 표준도구로서 뿐 만 아니라, 출판서지 및 온라인 연속간행물 기사색인의 통제용어집으로서, 미국 내외의 각종 서지기관에서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정보검색도구로서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Chan 2005, Schwartz 2001). 따라서 LCSH에서의 용어통제원칙과 한국어의 표기사례를 분석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용어를 선정할 때의 원칙은 목록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할 것 같은 주제 용어를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문헌이나 개념, 혹은 어떤 사물에 붙여진 단어나 구 형태의 용어를 선정하는 것이다. 각 주제마다 통일표목을 만들기 위해 동의어 중에서, 학술용어와 통속용어 중에서, 상이한 철자법 표기 사이에서, 최신용어와 기존용어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LC에서 제시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김태수 1999, 윤정옥 2001)

(1) 동의어: 표목으로 채택하는 용어는 이용자에게 친숙하며 의미상 모호하지 않은 기준들을 갖춘 용어를 선택한다.

(2) 학술용어 Vs 통속어: 전문가들이 주로 사용하게 되는 학술용어보다 대중 다수가 사용하는 통속용어를 선택한다.

(3) 최신어 Vs 구식어: 최신어가 기존의 구식어보다 우선하도록 한다. 다만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표목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구식어를 새 표목의 한 부분으로 할 수는 있다.

(4) 상이한 철자법: 새 표목을 채택할 때, 최신의 철자법이 우선한다. 다만 상이한

철자법이 여러가지로 나타날 때는 참고자료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선택하고, 이용자들에게 가장 친숙한 것들을 선택하도록 한다.

특히 한국관련 용어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유 명칭의 구성원리는 이름전거파일에서 빌려오거나 주제전거파일에서 가져올 수 있는데 인명, 단체명, 지명 및 기타 사물의 명칭은 그 저작에 관한 주제표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미 생성된 이름전거파일(전거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올 수 있다. 이름 전거파일에 속하지 않은 고유명사용 표목은 주제전거파일에 수록한다. 행정구역이 아닌 지리적 명칭, 건물 등의 이름, 전설적이거나 허구적 인물의 이름, 가문이나 왕가의 이름, 예술작품명, 역사적 사건 이름, 상품명, 놀이명, 인종집단명 등으로 사용된 용어를 한데 모아 주제전거파일을 구성하는 것이다.

## 6) 띄어쓰기에 따른 표기의 변화

한글 표기의 기본 원칙은 발음나는대로(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의 표기이지만, 띄어쓰기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표기될 수 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ALA/LC에서는 목록작업을 위하여 띄어쓰기의 원칙을 중요하게 다루어 다음과 같은 일반적 원칙을 정하였고, 이에 따른 세부 원칙들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LC 1997). 이러한 일반적 원칙 하에 다음과 같이 특별 기준을 두어 목록과정 시 띄어쓰기 작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1) 각 단어와 어휘단위(토씨포함)는 다른 단어로 부터 분리(예: 칼라/ tv/ 를/ 중심 / 으로)시켜 목록 기입한다.

(2) 미 의회도서관은 띄어쓰기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한 전거통제 장치로서 표준사전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러한 전거사전에서 발견 할 수 있는 단어는 어휘단위 혹은 한 단위로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거 도구에 나타나지 않은 단어나 말의 단위는 분리하여 사용하거나,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결해서 기술 될 것이다(Kim Young-Ki 2007). 띄어쓰기 할 때, 의문이 나는 단어들은 분리시켜 띄어 쓰도록 한다.

(3) 복합어(compound word)는 두개(이상) 단어(합성어)의 조합으로 간주한다. 합성어(binary word)는 두개의 한자어로 구성되거나, 한글 두개(이상)의 음절로 이루어진 복합체이다. (복합어: 효자, 맏아들, 돌다리)

(4) 복합어는 음조(음편)에 따라 두 부분(이상)으로 나누어져서 사용된다.

이상과 같이 언급한 원칙들은 개정 한글맞춤법(1988고시, 1989시행) 제 5장의 띄어쓰기의 표기방식과 상당히 다르다. 제 5장 41항부터 50항까지 적용된 띄어쓰기 방식에서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각 항의 예시에서 앞부분은 한글맞춤법의 원칙을 따른 것이고 뒷부분은 ALA/LC의 용례를 따른 것이다. 띄어쓰기 방식에 따른 차이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앞부분은 한글맞춤법의 방식이고 뒷부분은 현재 ALA/LC가 채택하고 있는 띄어쓰기 방식인데, 대체로 가급적 단어의 분절을 많이 시도하였다. 띄어쓰기 원칙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표기의 실재는 다음과 같다.

(1) 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일반원칙] [ALA/LC]

누구를 위하여 Nugurül wihayö -> Nugu rül wihayö

좋은 울리나 Chong'ün ullina -> Chong ün ullina

꽃에서부터 Kkotesöbutö -> Kkot esöbutö

(2) 42항: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

아는 것이 힘이다 Anun Kösi himida -> Anun Köt i him ida

뜻한 바를 알겠다 ttüthan parül algetta ->ttüthan pa rül algetta

(3) 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소 한 마리, 연필 한 자루).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두시 삼십분 오초 tusi samsippun och'o -> tu si samsip pun o ch'o

삼학년 Samhangnyön -> sam hangnyön

(4) 44항: 수를 적을 적에는 '만' 단위로 띄어 쓴다.

3456만 3456 man -> 3456man

삼천사백오십육만 Samchön sabaek osip yukman -> samchönsbaek osipyukman

(5) 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

열 내지 스물 Yol naeji sömul (같은)

책상, 결상 등이 있다 Ch'aekssang, kölssang tügi itta (같은)

(6) 46항: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좀더 큰것 Chomdö K'un Kot -> Chomdö k'ungot

한잎 두잎 Han ip tu ip -> Hannip Tuip

(7) 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어머니를 도와 드린다 Omöni rül towa türinda -> Towadürinda

(8) 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 Ch'ungmu'gong Yi Sun-sin chang'gun (같은)

(9) 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붙여 쓸 수 있다.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Han'guk taehakkyo sabōm taehak

-> Han'guktaehakkyo sabōmtaehak

(10) 50항: 전문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 Mansōng kolsusōng paekhyōl pyōng

-> Mansōngkolsusōng'paekhyōlbyōng

#### IV 결론

서론에서 밝힌 바대로 2000년도에 새 한글로마자표기원칙이 공표되어 이미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불안정한 새로마자표기 규정을 해외 한국학 관련 도서관 등에 적용시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2장 및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매큐-라이샤위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계는 국내외에서 목록작업 시 이를 관례적으로 사용하는데 큰 문제점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도서관을 비롯한 해외 한국학 연구기관들은 매큐-라이샤위식 기입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여 표기의 기준을 업데이트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기도 하다(Kim Young-Ki 2007). 월드컵축구대회 등 행사를 위해서 각종 간판이나 여행안내서의 로마자표기법을 바꾸는 일은 단순한 일일 수 있으나,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서관에서 목록작업 시 현재 무리없이 사용되고 있는 정교한 현행 시스템을 갑자기 바꾸게 된다면 이는 실로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불필요한 노력이 뒤따를 것임이 분명하다는 견해가 대세적이다.

국가 브랜드가치가 점차 주목받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글의 영문자표기가 경우에 따라 가변성이 있거나 불일치한다면 국가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세계적으로 한글의 로마자 표현이 자주 바뀌게 된다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와 신뢰성은 떨어지고, 불안감이 커지게 되어 긍정적 이미지보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어 비즈니스 분야 등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보다 구체적인 발음 방식이 필요하다면,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발음기호로 국제음성기호(IPA, International Phonetic Alphabet)가 있으므로 이를 부가적으로 사용토록해서 한글의 표준발음과 표기법을 보다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글의 외래어표기법>의 기본 원칙 제 5항의 원칙은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한다”인데, 그동안 관용적으로 사용하던 표현에 대해, 인위적으로 어형을 바꾸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원칙을 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 model의 발음이 영국식 발음과 미국

식 발음으로는 ‘모들’이나 ‘마들’이 각각 영미식 원어 발음이라서, 우리가 현재 표기하고 있는 ‘모텔’과는 상당히 다른 표기를 사용하는데, 지금까지 ‘모텔’로 적어 온 것을 원어발음과 다르다고 해서 ‘모들’이나 ‘마들’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언어라는 것은 사회적 약속이고 관행이므로 갑자기 지금까지 구성원들이 약속에 따라 사용해온 기술방식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이다. ‘피자’의 발음이 원래는 ‘핏자’, ‘피짜’로 발음되나 이미 ‘피자’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개선된 표기로 바꾸는 것은 혼동을 주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김세중 2002). 역설적으로 외래어 표기에 대한 이 기본 원칙은 현재 한글의 로마자 표기 방식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많은 서지기관에서는 정보조직 업무 작업 시 매칸-라이샤워 표기법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미 전세계적으로 인증을 받아 사용 중에 있는데, 이를 급작스럽게 만들어진 (특히 서지기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새로마자표기법(2000년)으로 바꾸려 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소모적인 일이 될 것이다. 도서관계에서 로마자 표기법의 전환은 검색 용어 변동으로 정보검색 시장에 혼란을 초래케 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일방적인 밀어 붙이기 식 사업을 계획해서는 안 될 것이고, 현상을 제대로 보고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본 주제와 관련하여 주제 접근 작업을 위한 표기 방식 선택의 주체자로서 문헌정보업계의 확고한 의견 제시와, 이 분야의 정책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후속적인 연구가 다양하게 나오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김민철. 2005. 헛갈리는 한글 로마자. KBS 뉴스  
<<http://news.kbs.co.kr/article/all/200510/20051010/784506.html>>

김세중. 2002. 외래어표기 캠페인 특별기고. 『미주한인을 위한 외래어 표기사진』. LA: 미주중앙일보사.

김태수. 1999. 『목록의 이해』. 서울:도서관협회.

문교부. 1988. 『한글맞춤법(문교부 고시 제88-1호)』 <<http://www.hangeul.or.kr/21.htm>>

송기중. 2001. 『한영 우리문화용어집』. 서울: 집문당.

오경목. 2005. 한글의 로마자표기법과 한글 정보자원 목록 업무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4): 27.

윤정옥. 2001. 미국 의회도서관 주제 표목: 구성 원리와 적용정책. 『정보관리연구』 32(3/4): 151.

ALA, CLA & CILIP. 2002.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2』. Chicago: ALA, 2nd ed. 2002 Revision.

Chan, Lois Mai. 2005.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principles and application』. 4th ed. Westport, CT: Libraries Limited.

Holstein, John. 1999. “The McCune-Reischauer Korean Romanization system”. 『Transaction of Kore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74: 1-19.

Jeong, Wooseop. 2007. “Progress report of Romanization dictionary”. Committee on Korean Materials, CEAL 2007 annual meeting, Boston Marriott Copley Square, Salon A-C, March 27, 2007.

Kim, Young Ki. 2007. Revision of Korean Romanization and word division guidelines: progress report. Committee on Korean Materials, CEAL 2007 annual meeting, Boston Marriott Copley Square, Salon A-C, March 27 2007.

Library of Congress. 1997. ALA-LC Romanization Tables: Korean. <<http://www.loc.gov/catdir/dps/ronan.html>>.

McCune, G. M. and Reischauer, E. O. 1939. "Tables of the McCune-Reischauer system for the Romanization of Korean". 『Transaction of Kore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 29: 5.

Miller, William and Pellen, Rita M. 2005. Libraries and Google. Binghamton, NY: Haworth, 2005.

Schwartz, Candy. 2001. 『Sorting out the web: approaches to subject access』 . London: Ablex.

PCGN (2007). Work of the Permanent Committee on Geographical Names for British official use. ([www.pcn.org.uk/PCGN\\_work.htm](http://www.pcn.org.uk/PCGN_work.htm)) [cited 2007.6.9]

Tsiang, Amy. 2004. "Descriptive cataloging of East Asian Material : CJK examples of AACR2 and Library of Congress Rule interpretations". <<http://www.loc.gov/catdir/cps/CJKintro.html>>

UNGEGN. 2007. United Nations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 <[www.un.org/depts/unsd/dartor/index.htm](http://www.un.org/depts/unsd/dartor/index.htm)>.

UNGEGN Working Group on Romanization Systems. 2003. "Report on the current status of UN Romanization systems for Geographical Names, Version 2.2". <[http://www.eki.ee/wgrs/rom2\\_ko.htm](http://www.eki.ee/wgrs/rom2_ko.htm)>